

#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2025국제농업박람회 23일 개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제시할 세계적 축제, '2025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전라남도 나주에서 개최된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대주제 아래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이라는 슬로건으로 25개국 38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후 위기, 식량 안보 등 인류적 과제 속에서 농업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 해법과 미래 청사진을 선보이는 장이 될 전망이다.

박람회는 관람객이 농업의 무한한 가치를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5개 주제의 '마당(田)'으로 구성됐다. 실물과 체험 중심으로 설계된 각 마당은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오감으로 느끼고 배우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세대와 소통하며 농촌 문화의 가치를 나누는 공간인 '상생마당전'에선 스마트팜과 코딩, 드론 체험이 가능한 어린이·

나주서 25개국 380여 기관 참여... 농업의 미래 청사진 제시  
5개 주제마당... AI 기술시연부터 수확체험까지 콘텐츠 다채

직업 체험관부터 청년 농부들의 창업 지원을 돕는 청년창업농마켓, 전남 농산물 패션쇼와 월드 새참 콘테스트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농업미래전'은 박람회의 심장부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이끄는 미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다. AI 스마트팜, 기후변화 대응 품종, 우주 시대 먹거리 기술 전시와 세계 선도 기업 자율주행 트랙터 체험, 로봇건 '스팟' 시연 등 첨단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농업산업전'은 최신 농기계와 스마트팜 기술, 농자재 전시 및 판매 부스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 기술과 정보를 교류한다.

'비즈니스전'은 케이(K)-농업의 글로벌 교류와 수출 확대의 장으로, 16개국 50여

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월드푸드테크 포럼, 국제 커피 심포지엄 등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할 방침이다.

'힐링치유전'에선 풍요의 정원, 아열대 식물원, 고무마·감 수확 체험, 케이(K)-커피 홍보관, 반려문화놀이터 등 자연 속 휴식과 오감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슬로건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을 홍보 방식에도 적용했다. 공식 주제곡의 작곡, 노래, 뮤직비디오 제작 전 과정을 AI로 수행, 예산 절감과 시간·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홍보 사례를 선보여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박람회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기술 전시를



넘어, 기후 위기 속에서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2025국제농업박람회는 대한민국이 첨단 농업 솔루션의 선도적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성호 기자



## 광주 남구, '지역 보건 의료 계획 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주 유일, 3대 전략 추진·서비스 질 개선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정부에서 실시한 지역 보건 의료 계획 평가에서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8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2차 연도 시행 결과 및 3차 연도 시행 계획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은 지역민 건강 수준 향상과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4년마다 수립하는 보건 의료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차 연도 시행 결과 세부 지표 목표 달성 노력도 및 자원 협력 노력도, 개선 노력도, 지역 내 주민 과급률, 주요 성과 지표 목표 달성률까지 5가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또 3차 연도 시행 계획 결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계획의 적절성과 자원 협력 노력도, 목표 설정의 타당성, 수립 절

차의 적절성까지 4가지 세부 지표를 평가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30곳까지 32곳에 불과하다.

남구는 '건강 도시 남구 조성'을 목표로, 보건 의료 역량 강화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와 활기찬 미래를 여는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건강 안

전망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3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실행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2차 연도 주요 성과 지표 목표 달성률은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98.90%를 기록해 우수기관 선정의 원동력이 됐다.

남구는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 취약 지역인 구소·화장 지역에 보건 진료소를 마련해 연간 주민 1만 574명에게 진료 서비스 제공 및 방문간호 서비스와 치매 상담 3,977건을 진행하는 등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재일 기자

## "충장축제서 동구랑페이 이벤트 참여하세요"

총 500명 대상 10만 원 이상 결제 시 5만 원 선불카드 증정

로 결제한 영수증에 한해 합산하여 10만 원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 충장축제 동구랑페이 이벤트 부스 현장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익일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가 가며,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경품을 수령할 수 있다.

동구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축제 현장에서 광주은행 이동점포를 운영, 동구

랑페이를 현장구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구는 이번 행사가 충장축제 방문객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매출 증대와 동구랑페이 사용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축제장에서 지급되는 경품이 다시 동구 내 가맹점 소비로 이어져 선순

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누리집 또는 축제 현장 안내부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충장축제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구랑페이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주민 혜택 확대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 광주시, 가치소비축제 '사회적경제박람회' 연다

18~19일 시청...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120개 판매·체험부스

이번 박람회 참여는 오전 10시 개장해 18일은 오후 8시까지, 19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행사장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판매관 ▲정책홍보관 ▲학술행사관 ▲시민참여 체험존 ▲사회적경제 창업 상담관 등 총 120여 개 부스가 마련된다.

광주지역에서는 ▲협동조합 만들고(현

드메이드 공예) ▲티움직업재활센터(우리밀 쿠키·빵) ▲더좋은커피협동조합(수박 탄산수·커피) ▲정춘발산협동조합(재활용 체면) ▲수평공예교육문화원(과일모찌 만들기)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한다.

또 ▲서울 목화송이협동조합(수공예품) ▲세종 솔티마을(복숭아와인) ▲강원 허

브이야기(허브제품) ▲제주 초산협동조합(홍개 간장) 등 서울·세종·강원·제주 등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16개 기업이 참여해 지역 특산품과 사회적가치를 담은 상품을 선보인다.

18일 오후 5시10분에는 시청 실내 특설 무대에서 개막식(오프닝파티)이 열린다. 브라스 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시민과 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광훈 기자

## 서구, '골목경제·보행안전' 적극행정 실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음식점, 병·의원, 카페 등 일상 업종 전방으로 확대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사례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확산되며 서구의 대표적인 적극 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옥주 팀장은 쌍학로(서광주유체국~

칠원면옥) 구간의 상시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와 상가 주민들을 설득, 67%(1924세대)의 동의를 얻어 한쪽 가변주차제 도입해 이동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석우 기자

## 북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 지원 지자체가 결정된다.

올해 북구는 주민들의 주요 산책 공간인 삼각산과 군왕봉 일대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녹색이음누리길' 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사업이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삼각산 대포리봉부터 군왕봉까지 총 8.6km의 숲길에 등산로 정비, 나무계단 설치, 안전 로프 및 펜스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의 작업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평소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느꼈던 불편 사항과 구청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토대로 정해진 것으로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확보한 국비 6억 3천만 원에 지방비를 더해 총 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예산 편성과정을 거친 뒤 내년 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께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